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하프타임 잘 보내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새가족 환영회

일시: 2023년 6월 18일(오늘) 오후 2시
대상: 23년 3월~5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권사회 전체 수련회

일시: 6월 20일(화) 09:40
주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 2:10)
강사: 이범구 목사(부산 동원교회 담임), 윤성복 목사
장소: 본당

* 권사회 수련회로 금주 기도원 화요집회는 쉽니다

2023년 제 2회 CMTC 훈련

1차(비전): 6월 18일(주일) 16:30~18:30
2차(도전): 6월 25일(주일) 16:30~18:30
장소: 갈릴리홀

하절기 간편복장 실시

기간: 6월 18일(주일)~8월 27일(주일)
복장: 노타이 정장 차림
예외: 예배 관계자(설교, 사회, 기도, 안내 등)

에바다부 자원봉사자 모집

에바다부 수어예배와 여름수련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농인 및 난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에바다부 수어예배 PPT 및 영상 담당

- ▷봉사시간: 매 주일 12:20~13:40
- ▷봉사요건: PPT 작성 가능하신 분
- ▷모집기간: 충원시까지

2. 에바다부 여름수련회 헬퍼

- ▷봉사시간: 8월 14~15일, 충현기도원
- ▷봉사내용: 수련회 공동체훈련 안내
- ▷모집기간: 7월 17일까지

문의: 010-5845-4645 /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



충현교회 묵상집

매일성경 (7·8월호)발간

구입: 사무국, 정문 안내실 가격: 2,000원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차량안내부에서 충현의 예배와 주차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주차 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
지원방법: 차량안내부(B1)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기타문의: 김명성 부장(010-9910-4567)
정재복 차장(010-3712-0165)



교만, 오만 그리고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131:1-3)



지난 몇 주간 시편을 즐겨 읽으며, 시편의 두 가지 특별한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첫째,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이지만, 우리말로 읽어도 감동이 반 감되지 않고 은혜가 잘 전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와 같은 문학 장르의 번역은 문화를 번역하는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곧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번역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때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학습안식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체되었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사역에 대한 부담에 잠시 틈을 내어 전날 읽던 시편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 125:1)” 평소라면 금세 읽고 지나갔겠지만 시편 125편 1절이 마음에 와 닿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소신이 생겼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루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 125:2)” 끝까지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시 125:3)”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의인의 땅이 되면 악한 사탄의 힘이라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귀한 경험이었습니

알아두면 유익한 시편 읽기 방법

평행법은 시편을 읽을 때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문학에서는 병렬관계 혹은 대구법이라 불리는 보편적인 방법인데,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자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시 91:1)” 평행(대구)관계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사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기억도 돕고, 내용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행법의 또 한 가지 용도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선포하여, 그 내용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시 33:18)”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자 할 때 막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이며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 33편 19-2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즐거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자를 베푸시리라고 노래를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평행법을 중심으로 시편을 읽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의 교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1절 a)” 1절 전반부는 반복이 일어나는 평행관계를 통하여 교만과 오만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바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b)”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해 보고자 지나치게 애를 쓰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쇠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대충 살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낙

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성경이기에, 전반부에는 평행법을 통하여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라고 강조한 다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자 힘쓰다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큰 일과 놀라운 일에 박수를 치지만, 시편이 말씀하는 ‘큰 일’과 ‘놀랄 만한 일’은 인간이 성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큰 일’이며 그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큰 일이 지혜롭지 못한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과 구원의 놀라운 일 가운데 잠잠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떼 아이와 같도다 (2절)” ‘젓 떼 아이’는 성경에서 다소 특이한 시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부성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공급해주시는데, 방패나 산성과 같은 남성적인 보호가 시편을 비롯한 여러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2절은 젓 떼 아이와 엄마의 관계라는 모성애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방법은 너무 강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위압감이 들게 하거나 자녀들로 하여금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엄마 품을 벗어나고자 하는 젓 떼 아이는 없습니다. 형제자매간에는 물론 부자지간에도 경쟁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엄마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급의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벗어나려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가 질서가 깨진 삶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질서가 있는 삶이란, 마음에 교만이 빠지고, 눈에는 오만이 없어지며, 젓 떼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 본문 3절은 삶의 해답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라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 시편과 깊이 연결된 로마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일을 분별하여 나아감이 여호와를 바라는 삶의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입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와를 바라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리라는 소망으로 가득찬 삶이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 12:2a)” 이를 가리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삶은,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일에 애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과 고요함이 우리 삶을 두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Let Go of Pride, Arrogance and This

(Psalm 131:1-3)

Rev. Kyu Sam Han

Enjoying reading Psalms last few weeks, I was fascinated by the two particular points of Psalms. First, it was the fact that Psalms is Hebrew poetry, but even when we read it in Korean, moving emotion is not reduced by half but delivered to us as a grace through the poetry. Scholars say it is possible because the content intended to be delivered to us, that is, the heart and will of God is translated well even though the translation of literary genres like poetry is a challenging work of interpreting cultures. Second, God says to us through Psalms when it is really necessary even though we do not usually realize. During the sabbatical period for learning, I was to take a journey to perform the mission delayed because of

Corona. Owing to the busy schedule and burden of the mission, I took a short time and continued to read the psalms which I had read the day before.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nd like Mount Zion, which cannot be moved, but abides forever."(Ps 125:1). I would have read it up quickly in usual days, but at that time, Psalm 125:1 touched my heart because I wanted to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go with Him. I came to have confidence that "There will be no problem if I become the one who relies on Jehovah on this journey." "As the mountains surround Jerusalem, so the Lord surrounds his people both now and forevermore."(Ps 125:2). I also came to have the heart that I had only to go out relying on the word that He would protect us till the end. "The scepter of the wicked will not remain over the land allotted to the righteous, for then the righteous might use their hands to do evil."(Ps 125:3). The phrase continued was the voice of God. 'gyu' means the scepter of the ruler. I hope you believe that if our hearts and the church become the land of the righteous, even the power of wicked satans will become helpless.

The way of reading Psalms useful to be known

Parallelism is a very useful way to be known when you read the Book of Psalms. It is a universal method that is called a parallel structure, or parallelism in literature, which is not only an often used device but also one of the methods, which delivers the divine knowledge and wisdom of God to readers. "Whoever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Ps 91:1). The on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and the one who rests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in a parallel relationship(synthetic parallelism) are actually an identical one. It can help our remembrance and explain the content more abundantly through repetition. Another use of parallelism is to explain and declare a concept and define its content. I think it is a very wise method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God. "But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se hope is in his unfailing love,"(Ps 33:18). We know we should become the ones who fear the Lord and want to be so, but we often feel embarrassed when we have to explain concretely what the person that fears Jehovah is like. Psalms suggest a very important method for this case. Psalm 33 says those who fear Jehovah are those who hope for His unfailing love, and Jehovah watches over them. In Psalm 33:19-22 continued after this, the poet continues a song that those who hope for Jehovah's loving-kindness rejoiced in Him, and through the joy, Jehovah God will give them His unfailing love in person. It explains and defines what the person who fears Jehovah is like, what traits he has. Accordingly, reading Psalms based on parallelism can be said to be a very useful method.

Lessons from Psalm 131

"My heart is not proud, Lord, my eyes are not haughty;"(v 1a). The first half of verse one emphasizes pride and arrogance are what we must not do through parallelism in which repetition takes place.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or things too wonderful for me."(v 1b). When we try hard too much to handle what we can not handle on our own, our lives become exhausted. This word must not be misunderstood as meaning, 'Don't

do anything, and live as you can roughly manage." Because the Bible intends to erect and give strength to the discouraged, we must interpret this word as that the first half of it emphasizes through parallelism not being proud and arrogant, and then, says that life should not be the one that is broken by trying to perform what cannot be handled. Though people of the world applaud at the big and amazing work which extols the self, 'the great work' and 'the amazing work' the Psalm talks about are not what humans achieve but 'the great work' of salvation God is pleased with, and the one who performs the work is also God. It is the reason that the great work through which humans extol themselves is not wise, and also it is the reason that by obeying God silently in the midst of great works and amazing works of salvation God is doing, we should enjoy th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God's works.

"But I have calmed and quieted myself, I am like a weaned child with its mother; like a weaned child I am content."(v 2). A 'weaned child' is a little bit unique poetic expression in the Bible. The Bible usually says, 'we are children, God is Father, or of paternal love of God'. The masculine protection of a shield or a fortress, such as God reigns us, leads and provides us appears in several scriptures including Psalms. However, verse 2 interpret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through maternal love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a weaned child. The method of paternal protection seems to be strong enough for the children to be oppressed or to want to be out of him, but there is no weaned child who wants to be out of the mother's bosom. There can exist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brothers or even between sons and the father,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ren is a little bit different. Mother is not the object to be overcome but the being of protection and provision. Through this, God shows the people of God, the Israelites, did not obey God for long, tried to live on their own, and tried to be out of the boundary God gave to them so that the order of their lives was broken. A life having order is a life in which pride is away from the heart, arrogance disappears from the eyes, and one is in a relationship with God as if a weaned child is in the bosom of the mother.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v 3). Verse 3 of the text says the solution to life is to 'put your hope in the Lord'. If so, how could we live a life to put our hopes in the Lord?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God has distributed to each of you."(Rom 12:3). Romans deeply related to Psalms doesn't say not to think of anything but to discern the work given to you by Go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your faith and move forward is the practice of life putting hope in the Lord.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Rom 12:2). To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and to live discerning God'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is a life of putting hope in the Lord. Putting your hope in Jehovah in the Old Testament is the life full of hope that God will be sure to appear, and the life concentrating on and moving toward God.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Heb 12:2a). The New Testament expresses it as 'Let's look at Jesus'. The life of putting our hope in Jehovah is to focus on Jesus who hung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reigns, and look to Jesus and move forward. Dear everyone, let's put down the pride and arrogance of our hearts and efforts for doing the work which was not distributed by God. The peace and calmness God gives will surround our live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and I will strive to put our hopes in the Lord.



2023년 제1차 유아세례식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유아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주 동안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교육해주신 목사님과 문답해주신 교구 목사님과 장로님, 마음을 다해 축하해주신 충현교회 믿음의 가족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인이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아인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함께하는 배필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 믿음의 의미가 달라질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믿음 생활을 시작한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홍이서 엄마

첫 아이라 3개월 된 아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게 엄두가 안 나서 다음 세례를 기다리며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고민했는데, 아이가 백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린이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막연했던 걱정과 두려움은 어느새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유아세례 교육 중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삶에 치여 실천하지 못 했던 믿음생활이 아린이의 유아세례를 기점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린이에게 성경 먹이는 엄마아빠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정아린 엄마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막연하였는데 유아세례식을 통해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유진이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석유진 엄마

세상에 많은 가치관과 교육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말씀이 기준임을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아이를 말씀으로 기증삼아 주일성수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키우기를 결단했습니다.

성태연 엄마

은우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은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우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박은우 엄마

생후 5개월을 갓 넘긴 딸아이 정민이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며 정민이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한 지난 150일 가량을 돌이켜보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심지어 유아 세례 교육 시간에도 혹시나 도중에 아기가 울지는 않을까, 근처에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지 등에 더 많은 정신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의 마지막 준비 과정이었던 목사님, 장로님과의 문답 시간이 되어서야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딸아이를 돌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아기는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고 지원하는 도구의 역할을 제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기를 돌보는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이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일꾼이 되는 데에 필요한 밑거름이 될 것을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를 매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키우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함께하는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충현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유아 세례를 계기로 교회에 더 깊이 참여하고 또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정민 엄마

유아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자녀를 또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백프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야 하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이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지만 정말 이것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대로는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많은 기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너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가 먼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해야 한다. 네 입으로 나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을 주셨습니다. 유아 세례식 당일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 과거 어릴적 기억을 돌아보니 지난날 저의 윗세대의 어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고 본인의 시간들을 헌납했을 때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슬펐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태어나면서 부터 나는 주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한 나의 자녀까지 계획하심에, 그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믿음의 2세대를 세우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고 내 자녀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나의 아이도 놓지 않으시길 그리고 내 자녀들을 계획하신 것처럼 내 자녀의 믿음도 놓지 않고 끝까지 계획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뜻깊은 유아세례교육이었습니다. 혹시나 유아 세례를 고민하고 있다면 모두에게 꼭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홍지우 엄마



스리랑카 캔디 느헤미야 기도 선교를 다녀와서

-5/31(수) ~ 6/7(수), 7박 8일-



스리랑카는 불교와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은 작은 교회와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사역은 그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의 인도로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한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곳 성도들이 나눔과 간증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을 보며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도 이렇게 단단한 씨앗들이 심기어져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 단단해진 씨앗들이라면 나는 온상 속의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저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선교로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방문한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는 동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팀장 황경분 권사

느헤미야 기도는 현지인을 위한 기도임과 동시에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임을 깨닫고 나 자신의 믿음을 조명하고 회개하며 재건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교구 김정원 권사

이번 선교는 특별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과 기도예 더욱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선교였습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섬김에 더욱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10교구 송영복 권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 팀원들과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예 집중하며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다시 결단하는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6교구 오준분 권사

19명이 스리랑카 느헤미야 기도 선교가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 나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지 사역자와 동역하며 현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렸고 팀원들 각자가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깨닫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기에 이제 중현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2교구 안화순 권사

처음 시도해 보는 느헤미야 중보기도사역이라 긴장과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역인가? 기도하는 사역이라면 굳이 현지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몇 시간씩 기도만 하는 사역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까? 라는 염려가 틈을 뚫으나 은혜였습니다.

소승 불교국가로 기독교인들은 편견과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느헤미야 기도 사역을 할 때에, 말씀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는 가슴이 뭉클한 사연들을 나누며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6교구 정숙자 권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기간 중에 하루에 한 번 먹었던 두통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땀기모기를 방어하려고 완전무장한 옷차림 때문에 더위를 견디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선교기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 주셨습니다. 땀기모기도 막아 주셨고, 거머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방문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영혼들이었고, 오히려 선교를 간 우리가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심어두신 사역자들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려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땅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9교구 황윤희 권사

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봄학기(9기)를 마치며 (2)

충현 평생 대학원은 <모두의 강좌>로 봄학기(10주, 3-5월 중), 가을학기(8주, 9-11월 중) 교회 내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영성, 교양, 어문, 악기, 건강 등 다양한 강좌로 개강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형식으로 원하시는 다양한 강좌를 낱까만 겹치지 않는다면 중복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의 깊이와 전문성도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봄 학기처럼 가을 학기에도 많은 성도 분들의 참여하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봄 학기 받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강사님들, 실행위원들, 수강생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강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의 후기를 편집했습니다.)

음악학부

- 우쿨렐레(강사 강길례 권사)
 - 우쿨렐레 강사님의 수업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기타(강사 윤주성 집사)
 - 단 3개의 코드로 1000여 곡에 달하는 찬송반주를 할 수 있음에 놀라웠고 기타로 찬양인도 자로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 좋았습니다.
 - 강사님의 친절한 지도로 찬송가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표가 많은 찬송가를 쉬운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기타 연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즐거운 성악발성(강사 이상주 집사)
 - 발성강의를 통해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레슨으로 수정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 즐거운 성악발성법을 처음 접하고 개개인 하나하나 음정을 잡아주며 성악의 발성 기초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한 복습으로 유튜브를 만들어 특으로 보내주시는 열과 성의 아주 훌륭한 수업과 복습 과정으로 찬양할 때 큰 힘이 되어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팬플룻(강사 이승순 권사)
 - 참으로 생소하고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직접 배워서 찬양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가을 학기에도 꼭 하고 싶습니다.
 - 처음 보는 악기라 소리가 나는 것도 감격스러웠고 동요를 연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하모니카(강사 이광현 집사)
 -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배우고 싶지만 하모니카가 제일 부담 없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딜 가도 부를 수 있어서 넘~ 기뻐요. 조용한 집에서도 부를 때에 듣기도 좋고 은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 은혜롭고 즐거웠어요.
- 플룻(강사 이진 집사)
 - 너무나 많은 음악기호와 악보를 배울 수 있어 더욱 좋았고, 섬세한 가르침, 악기에 대한 전사랑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짧은 시간이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 먼 곳에서 항상 일찍 오셔서 지극 정성, 맘을 다해 가르쳐주신 강사님 정말 많이 고맙습니다.
- 만돌린(강사 정연희 권사)
 - 만돌린이란 악기는 처음 만져보았고 이 조그마하고 귀여운 악기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신비하기도 하여 배워보고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악기라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강사님께서 기초부터 각 개인 개인 돌아가며 열정과 땀으로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밤늦은 시간에도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연주하여 동영상으로 카톡방에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찬양 QnA 2(강사 조정민 집사)
 - 작년에 이어 교회 음악에 대한 끝없는 자료 준비로 인한 행복한 배움이었습니다. 바흐의 하나님 경외심과 찬양, 작곡가, 악기, 연주자, 가사에 얽힌 이야기로 지루하지 않고 계속 귀를 쫓기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연결되는 노래도 함께 들려주셔서 참으로 유익한 강의로 하루가 행복했고 기다려지는 한주 한주였어요.
 - 매 순서순서 은혜로운 찬양명곡과 다양한 연주에 대한 멋진 해설 듣는 내내 감동에서 헤어 나오질 못 했습니다.
- 재미있는 교회 음악사(강사 김형삼 집사)
 -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점이 편했고 강사님이 교회 음악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잘 강의해주셔서 찬양의 역사에 대해 이해에 도움 받았다. 또한 성가곡을 링크하여 감상하도록 한 배려도 좋았다. 8주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져 아쉬웠다.
 - 강사님의 열정이 한 주 한 주 유튜브 강의가 올라 올 때마다 느끼며 교회음악사에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해 주셨다.





교양학부

• 원더풀 크리스찬(강사 임금순 권사)

- 외모를 가꾸며 내면까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과 재능과 강사님의 소품까지 아낌 없이 쏟아부어주시는 귀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 준비된 크리스천 리더 (강사 강윤호 집사)

- 공식적인 자리나 청중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거나 토론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발표를 할 수 있어 좋았다.
- 준비된 크리스천으로 청중들 앞에 나와 자신을 소개하고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님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대화나 소통에 있어 에티켓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 시와 성시 낭송

- 기초적인 시낭송 발성과 다양한 시들을 접하고 수업시마다 마이크 잡고 시낭송 하는 내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매우 좋아서 일상에서도 시를 통해 주를 찬양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었다.
- 강사님께서 어떻게 낭송해야 하는지, 장음과 단음 발음의 디션을 잘 가르쳐 주셔서 시 낭송을 잘 배웠다.

• 도시 농업과 힐링(강사 박남주 집사, 박옥현 집사)

- 강사님의 수업준비 및 열의에 감동 받았고 생명체의 소중함과 특히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베란다 상추심기 꼭 해 보려한다.
- 평생대학원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수강하였습니다.

• 한국화(강사 배종록 집사)

- 모든 준비물을 잘 갖춰주시고 매우 섬세하게 끝까지 열심으로 개인지도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음
- 기초지식도 없는데 차근차근 시범을 보여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

•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 여행(강사 강민경 간사)

- 제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되돌아보며 제 토래의 함께 하는 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귀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질과 성품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게 되며 잘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 자서전 쓰기(강사 유현중 작가)

- 강사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수강생 모두 사례를 통한 강의에 매료되어 한결 편안하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가을 학기가 기다려집니다.
- 대작가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셔서 글짓기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다음 강좌가 기다려집니다.

• 사귀기의 대화(강사 이혜선 집사)

- 강사님이 진행을 아주 잘하시고 개인의 말에 귀기울여주시며 공감을 잘 해주신다. 마음 치유의 은사가 뛰어나다.
- 조금만 성격이 여유로움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고 강사님의 생활에서 맑고 순수한 삶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 에세이 교실(강사 정연희 권사)

- 강사님의 매우 전문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심에 감동되었고 평소 글쓰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글의 구조와 단락을 배우게 되어 기본을 배우고 쓰게 되어 자신 있게 글다운 글을 쓰게 되어 감사합니다.

• 스마트폰 기초(강사 박미향 집사, 이홍재 성도)

- 엄마와 같이 수강하였고 옆에서 들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니 즐겁게 잘 수강하셨고 엄마와 같이 수강하니 공통된 관심사가 생겨서 좋았고 은혜로웠다.
- 전혀 몰랐는데 강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지도하여 배우게 되어서 좋았다.

• 스마트폰 앱 활용(강사 이경애 권사, 이홍재 성도)

- 스마트폰 강의를 통해서 모던한 것을 많이 배웠고 강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아주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현직 개인 사업 중에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헌신봉사하시는 모습과 강사님의 깊은 전문성과 자상하시고 훌륭한 교수법이 넘 좋았습니다.

• 책나눔(강사 이수경 전도사)

- 책 읽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되어 좋고 나눔을 통해 이해의 폭과 소통의 중요성과 말씀을 적용할 수 있었다.
- 혼자 읽는 것 보다 여러 사람과 같은 책으로 다양한 생각과 관점들을 나누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도서관도 가볼 수 있어 좋았다.

• 서예(강사 최광수 집사)

- 서예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못하고 있다가 충현 평생 대학원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고 강사님께서 성실히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초보인데도 많은 발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색연필화(강사 현명희 집사)

- 평소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자신도 없고 소질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감히 용기를 내지도 못했는데 지난 가을학기에 색연필화를 통해서 조금씩 자신을 갖게 되어 올 봄 학기에 한국화까지 수강하므로 미래의 저의 삶을(노후)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의 모든 배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